



22: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, 하나님  
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, 그를 부르  
셨다 “아브라함아!” 하고 부르시니, 아브라  
함은 “예, 여기에 있습니다” 하고 대답하였  
다.

22: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“너의 아들, 네가  
사랑하는 **외아들 이삭**을 데리고 모리아  
땅으로 가거라.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 
산에서 그를 **번제물**로 바쳐라.”

22: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,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.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. **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,**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.

22:4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,  
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.

22:5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. “내가  
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, 예배를 드리고 너  
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, 그 동안 너  
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  
거라.”

22:6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 
이삭에게 지우고,

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, 두 사람은  
함께 걸었다.

22:7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. 그가 “아버지!” 하고 부르자, 아브라함이 “얘야, 왜 그러느냐?” 하고 대답하였다. 이삭이 물었다. “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,

**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?”**

**22:8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. “얘야, 번제로  
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 
주실 것이다.**

(히 11:19)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 
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 
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.

22: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, 하나님  
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, 그를 부르  
셨다 “아브라함아!” 하고 부르시니, 아브라  
함은 “예, 여기에 있습니다” 하고 대답하였  
다.

21:22 “하나님은,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,  
당신을 도우십니다.

21:23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, 당신이  
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 
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. 당신이 나그네  
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, 내가 당신에게  
한 것처럼,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 
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.”

22:12 천사가 말하였다. “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!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! 내가 너의 아들,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,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.”

22:13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,  
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, 그 뿔  
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. 가서 그 숫양을  
잡아다가,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 
드렸다.

22:14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, 아브라함이  
그 곳 이름을 **여호와아레**라고 하였다.

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**‘주님의 산에서  
준비될 것이다’**는 말을 한다.

**(요 1:29) “보시오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 
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.”**

(요 3:16)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 
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, 이는 그를  
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 
얻게 하려는 것이다.